

2023년 4월 9일

금문교회 부활주일예배 GGPC EASTER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 7 “For there is hope for a tree,  
if it be cut down, that it will sprout again,  
and that its shoots will not cease.  
8 Though its root grow old in the earth,  
and its stump die in the soil,  
9 yet at the scent of water it will bud  
and put out branches like a young plant.  
10 But a man dies and is laid low;  
man breathes his last, and where is he?  
11 As waters fail from a lake  
and a river wastes away and dries up,  
12 so a man lies down and rises not again;  
till the heavens are no more he will not awake  
or be roused out of his sleep.  
13 Oh that you would hide me in Sheol,  
that you would conceal me until your wrath be past,  
that you would appoint me a set time, and remember me!  
14 If a man dies, shall he live again?  
All the days of my service I would wait,  
till my renewal[b] should come.  
15 You would call, and I would answer you;  
you would long for the work of your hands.  
16 For then you would number my steps;  
you would not keep watch over my sin;  
17 my transgression would be sealed up in a bag,  
and you would cover over my iniquity.

요기 Job 14:7-17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절 주일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죄악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써 저희가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초대교회처럼 저희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구원 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야! Maria!**

요한복음 John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But Mary stood weeping outside the tomb, and as she wept she stooped to look into the tomb.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the body of Jesus had lain,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They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She said to them,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Having said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And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 이라는 뜻이라).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and said to him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Jesus said to her, “Do not cl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say to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Mary Magdalene went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무덤에 계신 주님의 시신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두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동산지기를 만나, “당신이 옮겼거든 내가 가져가리이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그 새벽에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씀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랍오니!” 하며 응답했습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많습니다.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을 아는 것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모든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르심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활신앙은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아직 아니” (not yet)이기도 하지만 “이미 벌써” (already)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제 우리가 응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랍오니!  
선생님!

우리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서는 부활신앙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증거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분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욘이 바라본 소망을 소개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욘기 19:25-26

욘 같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교회역사는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믿지 못하던 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활의 아침마다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합니다.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But Mary stood weeping outside the tomb, and as she wept she stooped to look into the tomb.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섰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은 결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the body of Jesus had lain, one at the head and one at the feet.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있었습니다. 머리 편에, 발 편에 각각.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They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She said to them,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 때가 아닌데 우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Having said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이 말 후에 마리아는 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And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seeking?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아직은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 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놀랍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뵈다니!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 아닐까요?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 이라는 뜻이라).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and said to him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Maria!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마리아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To him the gatekeeper opens.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요한복음 John 10:3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목자이셨습니다. 갈 길을 모르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누가복음 Luke 10:20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책” 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요한계시록 Revelation 20:15

생명책에 구원 받을 자의 “이름” 이 기록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여인” (누가복음)으로, 어떤 이는 “창녀였던 여인” 으로 기억합니다. “일곱 귀신” 에 시달렸으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여인 등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 죽으심 때도 곁을 지켰고, 부활의 아침에 홀로 무덤에 간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켰습니다. 분명히 “돌이켰” 는데, 다시 돌이킨 것입니다. 이번은 “몸” 이 아니라 “마음” 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뵈었습니다.

랍오니!  
Rabboni!

여기서 진정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Jesus said to her, “Do not cl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say to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증거” (witnessing)하는 일입니다. 개인감정에 사로잡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에게 가야 합니다. 이들이 “육신의 형제들” 일까요? 아니면 “제자들” 일까요? 내 생각에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마태복음 6:9b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로,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자입니까?

올라간다!  
I am ascending!

내려오신 분께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요한복음 John 3:13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은 일차로 “십자가를 지심” 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요한복음 John 3:14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은 이차로 “승천” 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will tak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you may be also.  
요한복음 John 14:2c-3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는 승천과 재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구원의 모든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다니!

사마리아의 무명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들은 것도 이런 정도로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일대일로 만나 말씀하시는 주님.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Mary Magdalene went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뵈었다!” 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증인” 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 해야 합니다.

주님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분께서 내려오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 해야 할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할 것은 “부활신앙” 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e resurrection of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결론입니다.

2023년. 지금 우리는 극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 년이 다르고, 심지어 한 달이 다릅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기 염려, 판단,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 중에 주님께서 아직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뵈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할 것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소망과 부활믿음은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게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John 11:25-26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바른 부활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나는 2023년 올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금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전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슬픔을 안고 무덤에 올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에 무력한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뵈십니다. 낙심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증인과 복음 사명자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발걸음을 무덤에서 세상으로 돌려 세우십니다.

1. 우리가 증거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 또한 우리가 증거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3.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그것을 증거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4. 재림주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전파 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전파 하면서. 아멘.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어제 저녁에 우리교회 청년 출신 박현철 집사로부터 메시지 받았습니니다. 여러분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날,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해 봅니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새 생명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니다! 주님 사랑합니니다.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새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